

재택근무 확산에 'K 클라우드 협업툴' 해외 증횡무진 활약

NHN 두레, 현산·아모레·EBS 등 국내 주요 기업들에 협업툴 제공

네이버웍스, H 매출 점유율 34% 라인과 유사한 UI로 호환성 높아

토스랩 잔디,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 대만시장 1위, 베트남도 사업확대



네이버클라우드의 네이버웍스, NHN의 NHN두레가 대표적이다. 협업툴 콜라비, 협업툴 플로우처럼 아예 협업툴만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기업들도 있다.

국내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로 전환한 기업이 많아지면서 협업툴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 협업툴을 이용하면 화상회의 및 미팅 스케줄, 중요 문서 기간들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관할 수 있기에 굳이 회사를 가지 않아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특유의 높은 보안성도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채택할 때 협업툴을 선택한 원인으로 꼽힌다. 협업툴은 클라

우드 전문기업의 클라우드망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 보관하는 것보다 보안성이 높고 오류가 있을 시에도 중앙에서 빠른 복구가 가능하다.

국내시장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고 있는 건 NHN의 두레이다. 두레는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해 HDC 그룹 전 계열사, 현대오일뱅크, EBS, 대한제분, 아모레퍼시픽, NS홈쇼핑 등 주요 기업들과 협업툴 제공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국외에서도 주목하는 K-협업툴

현재 국외 클라우드 시장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글로벌 소핑기업인 아마존에서 파생된 아마존클라우드(AWS)를 필두로 다양한 성과를 내면서다.

하지만 협업툴 시장으로 분야를 좁히면 한국에서 유래된 클라우드 협업툴의 성장이 매섭다. 특히 네이버클라우드의 네이버웍스는 일본에서 올해 매출 점유율만 33.6%를 기록하며 앞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기록은 5년 연속으로 진행 중이다.

네이버웍스가 일본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건 협업툴 UI가 메신저 라인고 유사해 사용이 쉽고 라인고의 호환성이 높다는 사실이 꼽힌다. 특히 작년부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근무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기업의 이용 확대와 기존 고객기업의 전사적 도입 확장 등으로 이용 ID수가 확대되며 매출도 증가했다. 네이버클라우드에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영상통화, 설문조사 기능 등을 강화한 것은 물론, 업종별 특화 툴과의 연계도 높이고 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연계 가능한 툴은 110개 이상에 이른다. 네이버웍스는 전 세계 글로벌 고객기업만 25만사를 돌파하기도 했다.

네이버클라우드 관계자는 “네이버웍스는 현재 한국어를 포함, 9개 언어 번역 지원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인공 신경망 기반 기계 번역 기술(NMT)이 적용되어 일반 기계 번역보다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시장 추가 확대에 대한 본지의 질문엔 “해외 진출 계획과 동남아 시장

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대상 시장과 타 이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스랩도 협업툴 잔디를 내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잔디는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하는 게 특징이다. 각 국가권에 맞게 시스템을 연동하고 현지 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지화에 방점을 뒀다.

토스랩은 일찍이 대만 협업툴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베트남에서도 신규 유료 고객이 자연 유입되면서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작년에는 아랍에미리트(UAE)의 Netaqs, 싱가포르 Rochade사와 추가 파트너 협력도 맺으며 사업 지역을 넓혀가고 있다.

토스랩 관계자는 “일본과 대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만은 현지 지사, 일본은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과 대만을 거점 국가로 그 외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로 영업과 마케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준혁 기자 junhyuk@metroseoul.co.kr

KT, '수출 애로' 협력사 해외진출 돕는다

두바이 GITEX, 스페인 SCEWC 글로벌 ICT 전시 참여 기회 지원

KT가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ICT 전시 행사 참여 기회를 지원해 해외 진출의 디딤돌을 마련한다.

KT는 17일부터 21일까지 아랍미리트(UAE)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리는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GITEX)'에 협력사들의 참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1회째를 맞은 GITEX는 중동지역 최대 IT 전시 행사로 매년 4000개 이상 기업과 14만명 규모의 바이어가 참여해왔으며,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서비스를 세계 무대에 효과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두바이 GITEX 현장에 'KT파트너스관'을 마련하고 협력사 서비스와 기술의 실물 전시와 함께 기업별 전문 안내·통역 인력을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지 바이어와 참여 기업간의 심층 상담은 두바이-한국 원격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GITEX)에 마련된 KT파트너스관 모습. /KT

병행 형태로 진행한다.

KT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처음 온·오프라인 병행 형태의 협력사 해외 ICT 전시 참여를 지원했으며, 임직원이 해외 출장 가는 부담 없이 실제 구매나 사업 협력 의사가 있는 바이어와 심도 있는 상담이 가능해 참여 기업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GITEX 2021 전시회에 참여하는 협력사는 우리로(양자암호소자), 이노피아테크(초소형 셋톱박스), 이와이엘(음성 암호화 장치), 지엠티(선박 관제 시스템), 호성테크닉스(동축커넥터) 등 5개 기업이다.

또 KT는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2021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콩그레스(SCEWC)'에도 KT파트너스관을 마련하고 협력사 전시 참여를 지원한다.

스페인 SCEWC 전시는 가보테크(가보동 양방향 점멸기), 고려오트론(광분배기), 성장(무정전 CCTV), 제씨콤(광패치코드), 파프리카데이터랩(도시 생체정보 수집 플랫폼), 헬스허브(클라우드 의료 솔루션) 등 6개 기업이 참여하며, 현장 전시와 원격 비대면 상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윤정 기자 echo@

U+알뜰모바일, 업계 최초 OCR기능 도입

네이버클라우드 클로바 OCR로 가입신청서 기입 항목 27% 감소

미디어로그의 알뜰폰 서비스 'U+알뜰모바일'은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광학문자인식(OCR)' 기능을 알뜰폰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클로바(CLOVA) OCR의 '도큐먼트(Document) OCR'은 네이버의 클로바 AI 자연어 처리기술(NLP)로 비정형 문서들을 선행 학습시킨 후 글자 위치, 문서 양식과 관계 없이 필요한 정보만 추출해 분류까지 자동으로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업로드하면 이미지 속 정보를 텍스트로 자동 변환해주며, 영수증, 신용카드, 사업자등록증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텍스트를 추출해준다.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휴대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가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U+알뜰모바일은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OCR 기능을 적용, 본격 상용화했다.

이에 따라 U+알뜰모바일 고객들은 'U+알뜰모바일 다이렉트몰에서 온라인 가입신청서 작성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발급일자, 신용카드번호 등 상세 정보를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신분증이나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업로드하면 문자 변환 후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돼 일일이 기입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특히, 이번 OCR 도입으로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고객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의 수가 기존 대비 약 27% 줄어들어 가입 시 소요되는 시간을 큰 폭으로 단축했다.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 뿐만 아니라 온라인 가입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노령층의 가입 편의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U+알뜰모바일은 향후 디지털 경험을 중요시 하는 MZ 세대의 알뜰폰 가입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 고객의 디지털 경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

삼성전자, 5G 업로드 속도 2배 빨라진다

버라이즌·퀄컴 등과 공동 기술시연

삼성전자가 5G 속도를 한단계 끌어올렸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에서 버라이즌과 퀄컴 등과 공동으로 5G 기술 시연을 통해 업로드 속도 711Mbps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종전보다 2배 가량 빠른 속도다. 일반 사용자뿐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한 기업용 서비스에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밀리미터파 컴팩트 마이크로 장비에 2개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함께 이용하는 기술(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도입해 기존 200MHz 업로드 대역폭을 2배로 확장하고, 여러 안테나를 동시에 활용하는 다중입출력(MIMO) 기술 등을 적용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개발팀장 이준희 부사장은 “버라이즌, 퀄컴과 협

력한 이번 초고속 업로드 시연을 통해 차별화된 5G 서비스와 몰입감 높은 사용자 경험을 실현하는 데 한발 더 다가섰다”고 말했다.

퀄컴의 두르가 말라디(Durga Malladi) 수석부사장 겸 5G 담당 본부장은 “업로드 속도의 향상은 환승센터, 도심지, 쇼핑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의 활용될 5G 밀리미터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 “삼성전자, 버라이즌과의 협력은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의 대표적 사례”라고 평했다. /김재용 기자 juk@

25일~내달8일까지 SSAFY 모집

삼성이 올해에도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성장할 청년을 모집한다.

삼성은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7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SSAFY는 국내 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삼성이 주관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한다. 매년 2회에 걸쳐 교육생을 모집해 수료생 2087명을 배출, 77%인 1601명

이 544개 기업에 취업했다.

이번 7기 교육생은 모집 규모를 1150명으로 대폭 늘렸다. 당초 모집 인원은 연간 1000명이었지만,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 우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면서 올해에는 1900명, 내년부터 연간 2300명으로 대폭 늘렸다.

모집 대상은 29세 이하 미취업자 중 4년제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다. 서울과 대전, 광주와 구미, 부울경 캠퍼스 등 지역에서 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김재용 기자